

金鰲新話 小考

— 生死觀을 中心으로 —

沈 汝 澤*

目 次

- | | |
|------------------|---------------------|
| I. 序 | IV. 人物을 통한 葛藤의 解消 |
| II. 만남의 必然性和 生死觀 | V. 同一化의 問題 및 죽음의 機能 |
| III. 作品分析……李生窺牆傳 | VI. 結 |

I. 序

文學은 어느 時代나 社會에서도 경직되거나 固着된 틀에 의해서는 生成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작품의 價値가 死藏됨을 막기 위해서는 作品 生成 시대와 作家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당시대의 연구를 위해서는 당시대의 文獻을 통한 연구가 가장 뚜렷한 방법을 提示할 수 있으며, 우리의 경우 문헌의 부재로 인하여 정확한 자료에 의한 연구는 욕심일 따름인 것이다. 그러므로 餘他の 古代小說에 대한 연구도 그렇지만 金鰲新話에 대한 연구가 硬直性을 띠게 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본래 小說은 人物과 性格을 중시하며, 작품(혹은 '하나의 가치'라 일컬을 수 있음)의 중심적 위치에 두는 것이다. 이것은 작중 인물이나 性格을 設定하는 것으로서 플롯과 주제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인물 또는 性格이란, 행동을 위한 필연적인 存在要素이자 주제인 것이며, 주제를 代辯하는 것인데, 가끔 非人間的 사실이 소설에 介해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많은 예가 있지만 이솝의 寓話가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솝 寓話의 本領도 일반 소설과 마찬가지로 非人間的 사실일 수 없다. 그것은 동물이 그 自體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性格과 인물을 대변하는 까닭에서이다. 그렇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여 金鰲新話를 논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人文大學 教授

人間과 非人間, 漸層하여 俗世의 일과 靈界의 일이 연이어 매 時局마다 등장하기 때문에 일론에 의하여 규정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가 이루어 놓은 환경 속에 사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는 금오신화의 非人間(유령)들은 누구인가? 이를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작품의 본래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라 믿으며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金時習의 '金鰲新話'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대략 세 가지로 나뉘어 행해져 왔다. 첫째는 최남선에 의하여 그리고 김태준, 박성의, 이재수 등에 계승되어 행해진 종래의 연구로서 '剪燈新話 模倣說'¹⁾과 둘째 정병욱 등에 의하여 행해진 당시 사회와의 관련 연구, 즉 梅月堂이 처했던 당시의 사회 배경에 대한 전반을 연구하여 이를 작품에 투영시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금오신화'라는 작품의 가치가 獨自性和 文學性を 획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金時習의 哲學 세계에 대한 이해로부터 작품 분석을 행해나간 임형택의 연구 등이다. 임형택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등신화'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점을 논하여 종래의 '전등신화 모방설'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시습의 思想體系는 지금까지 氣一元論²⁾에 입각한 현실주의 정신을 들 수 있는데 本稿는 또 하나의 입장, 즉 梅月堂 金時習이 작품을 쓰게 된 내면 세계의 질서(혹은 사상체계)를 다루려 한다. 이러한 작업의 利點은 作品을 분석할 때에 작품을 쓴 작가의 의식세계의 構造인 철학 세계를 이해하여 그것을 작품에 다시 투영시켜 이의 조화를 얻는다면, 작품 본래의 독자적 경지를 개척할 수 있다는 연유에서이다.

梅月堂은 小說家로서의 자질이 풍부한 것 이상으로 詩人으로서의 자질과 천품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작품 중의 詩를 分析하여 吟味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또한 重視할 것이다.

古典文學 그 중에서도 근대소설에 대한 연구가 최남선에 의해 비롯되었다면 古代小說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대략 60여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작품의 올바른 가치 기준을 設定할 도리도 없거니와, 文學의 蓋然性에 의할진대 그러하지도 못하리라 추념된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까지의 고대소설에 대한 연구가 무위로 끝날 것이라는 논리는 아니다. 다만 部分的으로나마 금오신화의 경우 지금까지의 '전등신화 모방설'과 '전등신화 모방설에 대한 극복설'로 점철된 연구가 제3의 연구를 認定치 않는 데서 오는 硬直性을 띠게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음에 本稿를 筆하기로 하는 것이다.

작품의 올바른 가치 기준 설정이 可能한지 與否는 의문이지만 이를 위한 연구로서 所要된 60여년의 세월은 그리 긴 세월이 아니다. 작품의 올바른 가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단 한 귀결의 문장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연구가 꾸준히 試圖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1) 申基亨, 韓國小說發達史, 彰文社, 단기4293, pp.141~146.

2) 林榮澤, 韓國文學史의 視角, 創作과 批評社, 1984. pp.69~72.

II. 만남의 必然性和 生死觀

小説 속에는 世上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한 人間の 모습이 나타나 있어, 한 인간의 생생한 삶 의 양식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한 인간을 理解하고, 當時 社會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自身の 體驗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가설 위에서 소설이 定義될 수 있다면, 소설의 이해는 인물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소설 속의 인물을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많은 작가들은 그들 나름대로 事件의 짜임이나 인물의 설정이나, 時間과 空間的 배경을 설정하며, 필연으로 생각될 수 밖에 없는 葛藤을 創造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要素의 알맞는 配置가 작품의 질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며, 이 중에서 가장 重要視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갈등의 창조인 것이다. 敷衍하면, 작품에는 性格이 提示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격은 外部로 發現되는 自我와 內部에 숨어있는 自我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때때로 갈등을 빚는다. 인물 위주의 소설에서 갈등은 일단의 만남으로서 그 조건이 수월하게 성립이 된다.

'金鰲新話'의 경우, 이러한 만남은 生과 死의 만남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5편의 소설 모두가 예외가 아니다. 이렇듯 平凡하지 않은 素材이기 때문에 이승과 저승 사이를 넘나드는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 고대소설 중 그 어느 작품보다 소재의 特異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5편의 작품이 모두 그러하다. 이승과 저승 사이를 넘나드는 환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鬼神이라 간주하지만,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풀이할 필요가 있다.

鬼神은 鬼과 神으로³⁾ 분류하여 살펴야 하는데, 鬼는 冤鬼로서 죽었으면서도 이승에서 떠돌아 다니고 있는 영혼을 일컬을이기 때문에 이는 전부 冤鬼로 간주할 수 있다. 神은 이승에서 아무런 원한도 갖지 않은 평범한 죽음으로 이루어진 영혼을 일컫고 있다. 그렇다면 금오신화의 작품중에 등장하는 生者 以外の 모든 영혼은 모두 冤鬼로 불러도 무방할 것인데, 生者和 死者의 交流는 과연 可能한가? 아니면 僻선(僻善)의 성격이 度를 지나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은 東洋과 西洋, 특히 그 중에서도 韓國人의 生死觀을 함께 이해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대다수는 육체가 죽는다해도 정신은 남는다는 것을 깊이 믿고 있으며, 이러한 증거로서 가장 신빙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제사의례를 비롯한 각종통과의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 죽은 이의 영혼도 生者 못지 않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증거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금오신화에서 찾았다면 살아있는 남자와 죽은 여자와의 交遊가 아무런 장애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에서 나타난다. 全篇을 통해서 거의 불변의 법칙처럼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생자와 사자의 교류는 무엇을 意味하는가? 이는 분명히 金時習을 비롯한 당시대의 사람들이 인간 운명의 최대의 변화인 죽음을 생존과 별반 차이없이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이

3) 鄭鈺東, 陶南趙潤濟博士 回甲紀念論文集, '金時習의 鬼神과 道德觀' 新雅社, 1964, pp. 545~556.

한 문제는 심리학적인 문제에 속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死者는 生者と 꼭 같은 기능을 할 뿐 아니라, 生者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影響을 끼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신적인 본질인 주체는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으며, 변하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自我의 결모습일 따름인 것이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死者들의 의식生活이 生者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금오신화에서 흐르고 있는 생자와 사자의 교류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당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과학적 인간관계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요인을 배출하기 위한 神秘라 불러 무방할 것이며, 이는 충분히 논리 이전의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갈등을 야기시키는 死者의 문제를 설명했다. 그러면 실제 작품에서 死者와 生者와의 交遊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作品分析…李生窺牆傳

‘李生窺牆傳’은 개성에 사는 소년 선비 李生이 어느날 서당에 갔다오는 도중에 선죽리라는 곳에 살고 있는 어느 귀족의 집에 최랑이라는 열 여섯의 처녀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최랑은 詩文에 能通하고 태도도 아름다우며, 繡籠기를 잘하여 이웃에 소문이 자자하였다. 李生은 급기야는 詩를 架橋로 通情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최씨집 별당에서 그 처녀와 즐거운 몇 일을 보냈다. 귀가한 후로도 그들은 자주 만났으며, 이후로 그들의 사랑은 무르익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린 李生의 아버지는 이들을 경남 울산 농장으로 추방시키고 말았다. 계속되던 사랑의 密會는 중단되고 말았으며 최랑은 상사병으로 인하여 몸져 누워버리게 되었다. 중국에 가서 최랑의 부모는 그 사연을 알게 되고 이어서 곧 이씨 문중에 청혼을 하게 되었다. 최랑 부모의 끈질긴 청혼으로 결국 婚姻이 成立되어 그들은 다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였고, 이생도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후 흥건적의 亂이 일어나 난리를 피하여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생도 흩어진 가족의 안위를 모르고 피신을 하던 도중, 한편 이생과 헤어지게 된 최랑은 흥건적으로부터 정조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난리가 끝나고 이생은 고향에 돌아왔다. 그러나 고향에는 아무도 없었다. 人生의 無常을 느끼고 한숨짓고 있을 때, 그날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돌아왔다. 그동안의 안부를 묻는 이생의 물음에 최랑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저는 본디 귀족의 딸로 어릴 때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수놓기와 침선에 힘썼고, 詩書와 禮儀를 배워 다만 규중의 예법만 알고 그밖의 일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침 당신이 복숭아 핀 담 위를 엿볼 때 저는 스스로 벽해의 구슬을 떨어 뜨려 꽃 앞에 한번 웃고 평생의 가약을 맺었삽고 깊은 휘장 속에 깊이 만날 때 또한 정이 백년에 넘쳤습니다. 말이 이에 미치지 슬프고 부끄러움을 어찌 금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백년 해로의 낙을 누리려 하였더니 불의의 횡액을 만나 마침내 정조를 놔에게 잃지 않았으나 육체는 사막에 찢겼사오니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해골을 들판에 던졌으나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고요히 옛일을 생각할 때 원통한들 어찌하겠습니까. 당신과 그 날 깊은 골짜기에서

작별한 뒤 저는 속절없이 짝 잃은 새가 되었습니다. 이제 봄빛이 깊은 골에 돌아오고 인생은 이승에 다시금 태어나서 남은 인연을 거듭 맺어 옛날의 굳은 맹세를 헛되이 않으려 하오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옵나이까” 이러한 최랑의 답변에 이생은 매우 기뻐하며, 감사히 여기며 답변하기를 “이게 애당초 나의 소원이오”라 하였다. 이러한 이들의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生死觀과 만남의 의미를 정리하면, 그것은 바로 梅月堂 자신의 思想體系까지 더듬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은 무능하고 소극적이며, 자신의 利속만을 추구하는 人物들로서 現世의 權坐에 앉아있는 인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여자들은 고대소설에서도 대표작이랄 수 있는 ‘춘향전, 심청전, 박씨부인전’ 등에서 보여주는 ‘여자는 강하고 남자는 우유부단하고 약한 존재’와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작품 중의 인물을 규정해 버리는 것은 작품의 가치를 손괴시킬 우려를 內包하고 있다. 핵심은 그 여인들이 과연 누구를, 혹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이다. 가령, 춘향전인 경우에는 자유연애 사상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명하며, 심청전에서도 심청의 의지나 인간됨, 혹은 효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실과 ‘박씨부인전’에서도 박씨의 특출함이 그녀의 기담을 소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이다. 소설이 역사에 따라서, 혹은 시대나 장소 등의 상황에 따라 그 체계는 동일하나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다르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소설의 蓋然性이 어차피 존재한다는 것을 認定한다면, 춘향전은 당시 사회의 부패상에 항거하는 요소를, 심청전은 당시 佛敎界의 비리와 부패를, 박씨부인전은 남자들의 무능을 지적하여, 이것이 미약한 국력의 원인이 국내에 있음을 示唆하고 있음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이들 여인들을 포함해서 금오신화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열녀로서 부각되어 있다. 그리하여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남자에게는 맹목적인 복종심을 보이고 있다. 위에 예를 든 ‘이생규장전’의 경우를 계속 살피면, 이생은 최랑이 피난길에서 살아 돌아온 경위에는 별로 많은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다.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그의 재산과 부모의 안위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물음을 이미 죽어 있는 아내 최랑의 가슴에 던진다. 그러나 최랑은 이 물음에 소상한 대답을 하면서 하나의 반감도 나타내지 않는다. 바로 이 점에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信仰에 가까운 服從心과 忠誠心으로 그녀의 사랑은 감춰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情緒 중에 가장 큰 맥류로 자리하는 ‘情恨’의 문제를 대표해서 내포하고 있는 ‘鄭瓜亭曲, 님의 沈默, 진달래 꽃’ 등에서 共通되는 성도착 증세에 다름이 아니다. 그러나 금오신화에 수록된 모든 작품들에 등장하는 모든 여인의 行動과 意識이 모두 金時習의 意識을 代辯한다고 생각할 때, 이는 분명히 그의 현실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즉 現世에서 한 남성을 섬기려는 冤鬼의 그것과 김시습의 그것은 하나로 연결지을 수 있다. 부연하면, 금오신화는 김시습의 內面的 傳記랄 수 있는 것이다.

現實 社會에서의 불행과 가혹함은 어떠한 方法으로도 역전시킬 수 없는 것임을 梅月堂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5세 때에 승정원의 지사신인 박이창과의 일화⁴⁾로 인하여, 세종과 대면을 하게 되었고, 장차 세종에게서 世用의 약조까지 받았던 김시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나이 21세 때

4) 申基亨, 上揭書, pp. 137~138.

에는 정신적으로 가장 민감한 나이에 역사적인 大事件이 發生하였다. 그것은 바로 世祖의 왕위 찬탈인 것이다. 이 때에 三角山에 머무르던 김시습은 꿈과 포부로 가득찼던 그의 젊음을 뺏겨치고 머리를 깎아 중이 되어 금강산에 들어갔다. 이 때에 그의 나이가 24세였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많은 번민이 그를 찾아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약 3년 동안의 빈뇌 끝에는 결국 삭발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바야흐로 세상에 눈을 뜨고, 그의 인생을 개척할 最適의 時期에 그는 世上을 등진 生活을 하게 된 것이니, 그 이후로 그는 狂人 아닌 狂人으로 기행을 일삼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소설의 힘이란 여기에서 진정으로 발휘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現實의 不幸과 苛酷함을 逆轉시킬 도리는 없었지만 환상을 통해서 그것이 행복으로 역전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매월당은 현실을 중국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는 환상의 세계에서 다시 여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작품중에는 이러한 줄거리가 너무나 흔히 나타난다. 헤어졌던 남녀가 만나서(죽음에 구애받지 않음) 그들의 余恨을 푸는 데에 있어서 아무도 가로막지 않으며,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속세와 멀어지는 작업을 행한다. 매월당의 이러한 의식이 작품에서 나타난 바이지만, 죽은 영혼(冤鬼)의 넋도 慰撫하여 풀어준다는 예식과 내용은, 가히 한국적 휴머니즘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金時習은 生者と 死者와의 만남을 幻想이라는 架橋로 이어놓고 있는데, 이 가교는 현실과 遊離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연장인 것으로서 김시습은 현실을 중국으로 여기지 않았다. 작품 전체에서 김시습은 주인공들로 하여금 현실을 뛰어넘는 幻想의 세계에서 다시 만나게 하고 있다. 결국 이들 冤鬼들은 모두 여한을 풀고 이승을 떠나게 되어, 冤鬼로서가 아니라 神으로서 저승으로 떠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죽은 鬼神(死者 혹은 冤鬼)의 넋도 풀어준다는 한국인의 인간애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것을 종합하면, 금오신화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라거나 ‘시애설화’의 한 유형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는 당위를 지니고 있다. 금오신화는 3계를 살아가는 영원한 시간과 만남을 가지려는 몸부림이며, 절규이기도 하거니와 이승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계를 자유로이 왕래하는 한국인의 가장 중요한 생사관(인생관을 포함한 논리임)을 여실히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V. 人物을 통한 葛藤의 解消

金鰲神話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작품의 基底에 깔린 사실과 그 環境의 背景을 分析함이 옳은 듯 여겨진다. 물론 작품에 등장하는 天國, 地獄, 水宮이라는 空間的 배경이 무엇을 意味하는가 하는 문제는 주인공의 심리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의 淸경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논한 3계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홍길동전’에서의 울도국의 位置 및 성격을 파헤쳐도 유사한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울도국은 분명 본토와는 격리되어 있는 제3국임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홍길동전’의 작가로 알려진 許筠이 울도국을 창조했을까? 이는 유교 윤리와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홍길동전도 결국은 그 한계인 患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랜동안의 한국인의 意識을

어찌할 수 없음에 기인한 것이며, 금오신화의 3계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즉, 무대의 확산은 현실과의 乖離에서 오는 참담함과 불만을 해소하는 役割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실 克服의 意志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3계와 관련을 맺고 있는 여주인공들은 누구이며, 우유부단하고 연약하며, 결단력이라고는 거의 지니고 있지 못한 남주인공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종종 논의되어 오던 ‘누가 세조를 상징하는 것이고, 누가 매월당인가?’ 하는 문제에 어떠한 관련을 맺을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가 종종 작품 분석의 핵으로서 자리잡아 왔다는 것은 그러한 연구가 애초 방향부터 잘못 짚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금오신화 全篇의 결말 부분에서는 남주인공과 여주인공들이 어우러져 저승으로 가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김시습의 外現과 內在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김시습의 기행에서 충분히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우유부단한 남주인공은 現實 세계의 매월당으로 간주되고 어찌지 못하는 현실 상황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주인공은 현실을 떠난 환상에 살고 있는 매월당으로 意志의이며,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行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현실 생활은 항상 괴리를 낳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한 괴리는 우월주의(벤디즘)의 극한값인 퇴폐주의로 빠질 소지를 충분히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궁극은 남자와 여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남자는 단지 하나의 동기(모티브)를 제시했을 따름이고, 여자는 줄거리(스토리)를 엮어나가는 주체로서 작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에 등장하는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을 분리하여(성격을) 살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상의 살핌에서 서언에서 기초하였던 논의의 대상은 다소 정리를 보게 된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즉, 금오신화에 등장하는 유령들은 모두가 김시습이며, 이 유령들이야말로 소설 속에서 진실을 찾아 헤메는 존재로서 단순한 幻想 속의 존재들도 아니고, 완전한 현실 부정의 역할을 담당한 존재 또한 아니며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실을 상승시키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다. 그들은 당시 사회 체제와 김시습의 생존의 미에 대한 反應과 逆反應을 同時에 하면서 모순 자체의 파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V. 同一化의 問題 및 죽음의 機能

우리 나라 最初의 소설이라 불리우는 ‘금오신화’를 특별한 범주로 설정하여 새로운 논리를 創造해내는 것은, 종래에 일관해오던 작품의 유형별 分類와 좋은 대조를 이룰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이 논문이 기여하고 있다면, 죽음의 문제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작품 중의 生者と 死者의 同一化 문제는 상당한 의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의 종말인 죽음의 의미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돌이켜 생각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인간은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공포는 인간에게 의식이 남아있는 한 항상 存在할 것이며, 이러한 恐怖의 原因은 인간이 자기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불만과 空虛感 및 不安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여기에서 불안은 두려움과 통하는 要素로서 불만 및 공허감과 연결되고 있다. 이를 ‘萬福寺擣蒲記’에 나와있는 詩文을 통해서 살펴본다.

萬福寺에서 만난 梁生과 처녀는 처녀의 요구대로 그녀의 처소로 향해든다. 가는 도중에 왜 이렇게 한적하고 쓸쓸한 곳에서 사느냐는 양생의 질문에 대해서 처녀는 詩句로서 화답한다.

「於邑⁵⁾行路 豈不夙夜 謂行多露」

길 위에 이슬이 함초롬-
초저녁에 가고싶어라 마는
길에 이슬이 많을세라.

위에서 제기했던 바, 萬福寺에서 만난 처녀를 비롯한 네 명의 아가씨가 모두 梅月堂의 심경을 포함한 人物이라면, 왜 이렇게 쓸쓸한 곳에서 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슬이 너무 많아 님에게로 갈 수 없다’는 대답을 한다. 여기에서의 이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처녀를 비롯한 네 명의 아가씨가 冤鬼라면, 님은 梅月堂이 추구하는 바이며, 이슬은 梅月堂의 마음의 표현인 冤鬼들을 神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장애물)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이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본고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그것은 숨어 있는 神을 찾는 문제가 전혀 작가의 의도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문제의 핵심 죽음이라는 매개체야말로 이슬이라는 두려움 내지는 불안의 요소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인 것이다.

梁生の 물음에 詩로서 화답한 내용중에 나와 있는 ‘이슬’은 死者들의 세계에서 의의를 가질 수가 없으나, 生者인 梁生 즉 현실세계에서의 梅月堂에게는 불행과 가혹함, 그리고 시련을 뜻하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른이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슬픈만큼 더한 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후세의 호사가들이나, 梅蔚堂의 文學세계를 探求하는 학자들마저도 金時習을 自我를 喪失한⁶⁾ 때문에 세상을 버리고 기행을 일삼았다는 共通된 결론에 만족해 버리는 모순을 낳고 만 것이다. 不同의 것의 同一함이란, 자기 자신에 있어서의 대립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기 疎外를 의미하며 이를 다시 풀이하면, 자기 자신에 있어서의 대립이란 그 自身の 否定이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오는 葛藤으로 인해 기행을 일삼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입장에서 살펴볼 때에 현실세계에 연연하여 자신의 安危에만 급급, 죽음을 공포로 알고 있는, 또 그렇게 대하고 있는 세조의 측근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은 역시 여주인공인 개모동 처녀의 친구중 한 명이었던 유씨의 詩句를 통해서 알 수 있다.

却笑東風桃李花 飄飄萬點落人家
平生莫把青蠅點 誤作崑山玉上瑕

5) 詩經 原典에는 ‘於邑’이 아니라 ‘厭湫’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본 작품에서의 식귀절에 씌여 있는 것은 작품의 구조를 위한 작가의 의도로 분석됨.

6) 全斗河, 退溪思想研究, 一志社, 1978, pp.368~377.

우습고야 도리꽃은
봄바람도 좋다는
어이하여 남의동산
임자 없이 날고 있나?

한 평생 내 절개야
가실 줄이 있으랴?

백옥이냥 나의 마음
더러일가 두려노라.



이 詩句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자신의 신세는 남의 동산에 핀 꽃으로 비유되어 있고, 임자는 그 꽃을 보아줄 사람을 의미하며, 비록 님께서는 가셨지만, 그 님에의 절개는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가리라는 그의 마음은, 남의 동산에서 피지 않겠다고 하여 세조를 거부한 표현을 드러내고 있으며, 남의 동산에서 핀 꽃과 같은 朝廷의 文臣들을 조롱하고 輕蔑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듯 金時習은 生과 死를 同一視하여, 자신의 또 하나의 모습인 '유씨'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즉, 김시습은 현실세계에서 자아를 상실하게 되는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이 두려워 기행을 일삼은 것이다. 그리하여 자아 상실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임을 깨달았고, 그 죽음은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음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 중에 나타나 있는 여인들의 죽음은 金時習 자신이 주체의 혼란을 막기 위한 自救策의 行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작품중의 梁生과 여인은 동일한 인물의 마음의 표출이며, 자아 상실의 위기를 맞으면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불요불굴의 時習精神을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문에 의해 자답으로 이어지는 작품 전편의 전개는 궁극적으로 평생을 외로움과 더불어 지내야 했던 梅月堂의 처참한 현실마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VI. 結

人間은 주어진 상황을 더 발전시키려는 행동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역사는 발전된 것이다. 물론 이것은 행동에 力動的 性格이 있음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作品論'에서조차 작가의 환경에 대한 배경(시간과 공간의 개념 포함)은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작품과 사회생활을 一元化시키려는 努力은 多大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당시대의 시대사조(문예사조를 포함한 개념)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內容이 다른 작품끼리도 同質性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집단의 의식을 反映한 一個人 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파스칼의 광세 72장에 나와 있는 '전체를 통한 부분의 이해'가 가장 바람직하나, 이것 역시 梅月堂의 경우는 적용이 不可能하다. 그에 대한 기록의 결여는 물론, 당시대 사람들의 그에 대한 평가나 기록은 거의 전

무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로 부를 수 밖에 없다. 文獻不在라고…… 소설의 發生論의 意味로 살필 때에 소설의 구조와 환경의 구조가 동질화의 관계라면, 小說構造를 分析하는 것은 社會構造를 이해하는 方法이 될 것이다. 즉, 상기한 바는 소설속에 등장하는 人物의 삶의 樣式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 社會人의 양식과는 대립 관계에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동질적인 관계인 것이다. 이상 살피본 바에 의하여 다음의 논거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梅月堂의 個人的 갈망, 혹은 분노는 당시 사회의 집단(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데에는 默過했으나, 속으로는 분노를 느끼는 부류) 의식을 간접화, 내지 代辯한 것으로서, 이것이 ‘금오신화’라는 작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피볼 때에 작가는 例外的인 個人으로서 당시 시대인들의 입장을 간접화하거나 대변하고는 있지만, 집단의 행동양식을 맹종하지는 않는다. 매월당의 경우도 동일한 논리로 살피볼 수 있다. 즉, 김시습은 당시 집단의 의도를 금오신화에서 피력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행동양식과는 무관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기행은 이를 뒷받침하는 훌륭한 증거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構造라 칭할 수 있음)에는 집단의식과 개인적 갈망이 混合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당의 경우, 그의 작품인 금오신화는 숨겨진 많은 構造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숨겨진 구조를 찾는 일이 바로 소설을 이해한다거나, 소설을 읽는다는 개념과 동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러기에 종래의 ‘역사현장을 표면적으로 반영한 것일 따름’이라는 소설 이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금오신화의 숨겨진 구조를 찾아야 할 것이다. 本稿도 이러한 작업중의 하나로써 쓰여진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금오신화’는 從으로 古代로부터 전승하는 설화를 소재로 한 소설이며, 橫으로는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었음이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유감이다. 종전에는 문화의 경우, 미개한 것에서 조금 진화한 것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하였으나, 레비스트로스는 두 개의 문화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진화론(발전의 이론)을 부정하고, 구조적 동질성을 지닌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논하였다.

이상의 논리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1. 전등신화 모방설, 2. 전등신화 모방설에 대한 극복설, 3. 김시습의 현실과 작품과의 연관, 4. 등장인물의 문제 등이 ‘금오신화 연구’의 주종을 이루어 왔다. 여기에 本稿는 ‘作品’속의 인물들의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첨언하였고, 인물들의 同一化에 대해서 指摘하였다. 이 모두가 작품의 文學性을 찾으려는 노력임에는 변함이 없으나, 文學의 연구라는 것은 거창한 이론 속에 작품을 대입시켜서 해답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작품(구조)을 통해서 이론을 얻어내는 작업임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문학의 연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금오신화에 대한 연구도 작품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始終되어야 할 것이다.

Summary

A Study on Kumoshinwha
—On a View of Life and Death—

Shim, Yeo-taek

With the significance that Kumoshinwha written in the era of king Sejo of the Yi dynasty is the first novel of our country, the history of study for opening-up of the works original path began approximately sixty years ago. Two main streams are 'the imitation theory of Jundungshinwha' and 'the subjugation theory against the imitation theory.'

In the former, there is no doubt that it has been recognized as a formula since the theory has dominated the related academic world for a long time. In the latter, although much effort have been made to subjugate the assertion of the former, the usual methods consisted mainly of modern criticism theory. Therefore it lost its balance for understanding of the work.

According to the latter and as a way of getting rid of the latter weakness, this manuscript has placed the focus on the meaning of meeting between human being and regretful ghost(wongui), Maewoldang's view of life and death, and author's consciousness formed in the work.

- (1) The souls in Kumoshinwha are all regretful ghosts which communicate with living human being. This could be seen as a manifestation of author's discontent against the realities of life.
- (2) The Korean believes that the soul should be remained after death. This is the expression of humanism which treat the soul on the same footing with living human being.
- (3) In the work itself,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was studied through the Esaengyujangjun as a text and the author's will and consciousness are expressed very clearly.